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손화철 선생님(한동대 글로벌리더십학부)께서 학부교양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강의안입니다. 좋은연구 학습윤리교육 시리즈의 첫 번째로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가져야 할 자세, 공부 하는 사람 사이의 규칙, 공부하는 사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자료의 공유를 허락해 주신 손화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출처 : 손화철(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학부 교수).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http://grp.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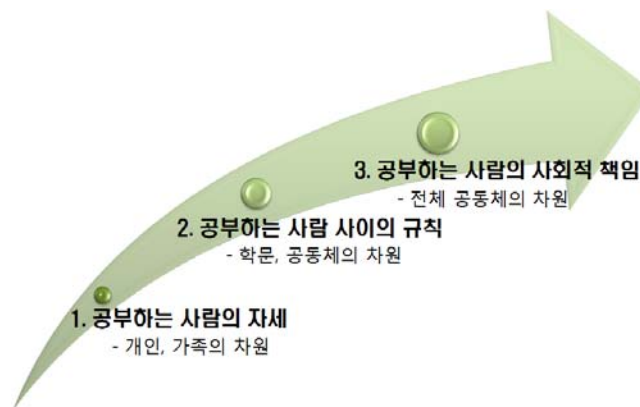
1. 서론

오늘의 주제: 공부에도 윤리가 있다

공부는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다. 설사 혼자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지난 세월동안 다른 사람들이 일구어 놓은 학문의 궤적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학습이다. 이렇게 공부는 사회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도덕이 있다. 이를 학습윤리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선택된 사람들이 받는 고등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학에서의 학습윤리는 매우 중요하다.

● 전체 내용

- (1)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 - 개인, 가족의 차원
- (2) 공부하는 사람 사이의 규칙 - 학문 공동체의 차원
- (3) 공부하는 사람의 사회적 책임 - 전체 공동체의 차원



2.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

가. 목적의식을 갖는다

- 1) 나는 왜 대학에 들어왔는가? 나는 이 과목(학문분야)을 왜 공부하는가?
- 2) 만약 스스로 목적의식을 찾기 힘들다면, 무슨 이유로 해당 과목이 개설 되었는지, 남들은 왜 대학교육이(혹은 이 과목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3) 스스로의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거나,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공부를 잘 하기 힘들다.
- 4) 취업을 하기 위해서나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억지로 공부하는 것이라면, 역설적이게도 취업과 졸업에 방해가 된다.

나. 모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 1) 성실함은 공부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다.
- 2) 공부의 결과 뿐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
 - 지각·결석을 삼가기, 연습·복습 실천, 과제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정해진 기한에 제출하는 것 등은 성적과 무관하게 매우 중요하다.
- 3) 함께 공부를 할 때 개개인의 성실함과 불성실함은 다른 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 진지하고도 열성적인 수업 태도(바른 자세, 좋은 질문)는 자신 뿐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학생과 교수에게도 큰 유익이다.

다. 책임의식을 갖는다

- 1) 나의 공부할 기회는 항상 기회비용을 수반한다.
 - 엄청난 등록금, 다른 사람들이 배울 기회, 대학에 오지 않았다면 했을 많은 일들..
 - 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주위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3. 공부하는 사람들의 사이의 규칙

가. 독창성을 통해 학문세계에 기여한다

- 1) 모든 공부하는 사람은 학문의 세계에 속해 있고, 해당 분야에서의 독창적 연구를 통해 학문세계가 더욱 풍성해진다.
- 2) 이 때의 독창성은 무(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분야의 발전의 맥락에서만 발휘될 수 있다. 따라서 배움의 도상에 있는 사람들은 향후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고, 독창적 사고를 연습하는 것이다.
- 3) 중복 게재와 같은 행위가 잘못된 이유는 이미 독창적인 생각으로 제출하여 학계의 인정을 받은 것을 다시 새 것인 양 내어놓기 때문이다.
 - 이미 발표된 내용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러한 비난을 피할 수 있으나, 이미 발표된 내용의 재발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ex. 한 수업에서 숙제로 제출한 과제물을 다른 수업의 과제물로 제출하는 것은 학습윤리에 어긋난다.

나. 다른 사람의 업적을 인정한다

- 1) 공부하는 사람들이 해당 학문분야에 독창적 기여를 했을 때에는 그에 준하는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
- 2) 이는 주로 인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인용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해당문헌을 찾아볼 수 있도록 매우 자세한 서지 사항을 밝혀야 한다.
- 3)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참조할 때 인용을 하는 것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 하나는 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칭찬하는 것이다.
 - 다른 하나는 나의 연구(혹은 과제물)을 읽는 사람들이 인용된 문헌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셋째는 나의 연구(혹은 과제물)에서 인용한 부분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증받기 위해서이다.
- 4) 표절이 잘못된 이유는 다른 사람이 한 독창적 기여를 자기 것인 양 속여 발표함으로써 그 기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 다른 사람의 저작이나 연구결과를 제대로 인용하지 않고 6어절 이상 그대로 빌려 쓰는 것은 표절이다. 반드시 따옴표 안에 넣고 인용해야 한다.
 - 중심 생각이 같다면, 표현이 달라도 표절이라고 보아야 한다. 간접인용의 경우에도 인용 해야 한다.
 - 인용을 했으되, 출처의 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 5) 공부하는 사람은 표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 레포트 월드, 해피캠퍼스, 레포트 지식월드, 레포트샵, 레포트 매니아, 페이퍼패스..
 - 과제물을 인터넷에서 사고파는 행위는 공부하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것과 같다.
 - 사는 것만 범죄가 아니라 파는 것도 범죄다.
 - 인터넷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모두 잘못된 아니지만, 자신이 생각하지 않은 내용은 반드시 인용해야 한다.
 - 인터넷 정보는 확인한 날짜와 URL을 명기해야 한다.
 - 인터넷 상의 정보라 하더라도, 저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되도록 인용을 삼가야 한다.

다. 공정하게 경쟁한다

- 1) 공부의 세계에서는 서로 독창적인 기여를 하려는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쟁은 절대적으로 공평해야 한다.
- 2) 연구(과제물)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표기하거나, 기여한 사람을 빼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 저자표기의 문제
 - ex. 조별 과제 수행을 위한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보고서에서 빼고, 해당자는 교수에게 문의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3) 시험 시간에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선의의 경쟁을 훼손하는 일이다.

4. 공부하는 사람의 사회적 책임

가. 공부는 진리 탐구의 과정이다

- 1) 공부는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이며,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인간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 2) 거짓인 줄 알면서 그것을 진리로 공표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 ex. 실험 보고서 데이터의 조작
 - ex. 황우석의 연구사기 사건 - 날조와 변조
- 3) 학문연구는 최대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나. 공부의 기회는 사회적 기회비용을 수반한다

- 1) 앞서도 대학교육의 기회비용을 언급한 바 있지만, 넓게 본다면 사회도 일정한 기회비용을 지불한다고 할 수 있다.
 -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책임이 면제되고, 졸업 이후에는 개인의 실력과 무관하게 일정한 혜택도 주어진다.
 - 대학교육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 2) 따라서 공부의 결과는 반드시 사회에 이로운 것이어야 한다.
 - 물론 이 때 “이롭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지만, 적어도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공부의 기회를 호기심의 충족과 같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부도덕하다.

다. 좋은 사회를 지향하는 공부를 해야한다

- 1) 공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전공지식 이외에도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 좋은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수정되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연구영역에서 필요한 일들을 수행해야 한다.
 - 좋은 사회에 대한 의견은 미래 세대를 포함해야 한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는 행위가 후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5. 결론

공부에도 윤리가 있다.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주변사람들에 대하여, 같은 학문 공동체에 속한 이들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 사회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행동의 규범들이 있고, 이 규범들은 전문 연구자들 뿐 아니라, 대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